

보도시점 2024. 4. 15.(월) 12:30 배포 2024. 4. 12.(금) 08:00

문화예술교육,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모색

- 4. 15. 유인촌 장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만나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예술교육자 전문성 강화,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예술 치유 활성화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5일(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 ▲ 권현정 청소년건축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이삭 헬로뮤지엄 관장, ▲ 노주희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 박미리 용인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 박은희 서울교육극단 대표, ▲ 심숙영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교수, ▲ 안애순 서울예대 교수, ▲ 최희아 마음공감 심리치료센터 소장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05년에 본격 시작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와 사회를 통틀어 전국 1만 개가 넘는 시설*에서 3백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해 작년 말 기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

- *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등 특수시설, 문화시설, 치유시설 등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국민의 체감도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교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운영되었고, 사회 교육은 수혜 대상이 문화적 취약계층 일부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국민) 11.3%, ▲ (아동·청소년) 39.7%, ▲ (성인) 7.0% ('23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케이-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과제를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도모, 사회 문제 해결하는 문화예술 역할 확대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과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외로움과 고립감 확산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해 예술 치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을 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한국 정부·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료를 발판으로,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11년 11월)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문화예술교육가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라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관실 문화예술교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환 (044-203-2761)
		담당자	사무관	김보미 (044-203-2762)

